

<1977년 개인전 서문>

귀국인사를 겸한 유리지의 첫 <금속공예전>이 열린다. 서울대 미대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고 모교에서 후진 양성에 진력하는 한편 국전과 상공미전을 통해 창의와 개성이 뛰어난 금속공예작품들을 연구 발표하여 온 디자이너로서 한 동안 미국에 머물러 금속공예 특유의 소재, 재료, 기법등 표현방식의 확대와 심화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Organic Form을 기조로 변형되는 독창적 스타일의 창출에 성공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발표회에서 그치지 않고 금속디자인, 특히 교육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값진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.

유근준(劉僅俊), 서울대 미대 교수